태안 해변길 Haebyeongil

굽이굽이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독특한 해안 생태계를 자랑하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은 2007년 유류유출오염사고로 쓰라린 아픔을 겪었지만 123만명의 자원봉사자와 지역주민 그리고 태안해안국립공원 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있어 지금은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태안 해변길은 유류유출오염사고로 침체된 태안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여름철 물놀이 중심의 단순 탐방에서 사계절 이용가능한 탐방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북한산 둘레길, 지리산 숲길, 제주 올레길처럼 태안의 아름다운 해안과 마을길, 샛길, 유류유출오염사고로 만들어진 방제도로 등을 연결하여 태안해변길이 만들어 졌습니다.
해변길의 일부 구간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탐방로로 만들어 졌으며, "자연과 문화 그리고 사람이 공존하는 편안하고 안전한 길"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